

Paris 통신 -15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 하나가 Toulouse-Lautrec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그는 Moulin Rouge의 댄서들을 주제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짙은 우

수가 느껴집니다. 그 댄서들의 삶도 그렇지만 화가 자신의 삶도 우수에 찬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몇 년 전 Paris에 갔을 때 이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몽마르뜨르 부근에 있는 것을 지도에서 보고 물어 물어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Moulin Rouge라는 내 발음을 도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온 듯한 친구 붙잡고 물으니 바로 통하더군요. 피차 프랑스어 발음이 서툰 덕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Moulin Rouge에 가려면 꺼려지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근이 Pigalle이라고 Paris의 대표적 홍등가이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일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부근을 걸으면 뭔가 기분이 찝찝합니다. 중간 두 사진을 보면 대충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ulin Rouge의 사진을 찍고 오는 길에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대낮이라 별일 없을 줄 알고 Pigalle 거리를 유유히 걷고 있는데 몇 명의 뼈끼들이 접근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SNU 교수가 그들이 이끄는대로 따라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냅다 도망갔습니다. 상황이 불온할 때는 36계가 최고의 전략이니깐요.

사실 Moulin Rouge는 밤에 볼 때가 더 멋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새가슴이라 밤에 그런 거리에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먹고 이숙해졌을 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맨 아래 것입니다. 그나마 날이 채 어둡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겁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에서 공연히 용기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행에서 Moulin Rouge 사진은 실컷 찍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Toulouse-Lautrec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춤 솜씨를 뽐내는 댄서들. 그러나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서글픈 인생. 일생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Toulouse-Lautrec. 그러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랑을 거절 당한 그의 슬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 옵니다.

Paris 통신 - 16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몽마르뜨르를 빼고 Paris를 얘기할 수 없지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보면 서울처럼 산들이 아기자기하게 둘러싼 도시가 매우 드뭅니다. 뉴욕, 런던, 도쿄 - 모두들 거의 허허벌판에다 도시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지요. Paris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보다도 더 낮은 몽마르뜨르 언덕이 더욱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숨 험뻑이며 몽마르뜨르 언덕을 오르면 사크르코르 성당이 시야에 바로 들어옵니다. 고색창연한 시내의 성당들에 비하면 새로 지은 티가 역력합니다.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이보다 역사가 더 긴 건물을 찾기 힘들 겁니다.) 내가 그 성당을 방문했을 때 마침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뜻은 모르지만 프랑스말 설교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난 천주교를 믿지는 않지만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마르뜨르는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 곳으로도 유명하지요. 두 번째 사진이 Picasso의 아틀리에였답니다. 한국 관광 가이드북 보면 그 집을 ‘세탁선’이라고 부르더군요. 왜 그런 희한한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아틀리에에는 화재로 소실되고 앞부분만 간신히 보존했다네요.

거기에는 van Gogh가 살던 곳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Toulouse-Lautrec이 살던 곳도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Toulouse-Lautrec의 집은 대략 이 부근이다라는 것만 알아내고 정확한 집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씀 드린 그 우수에 젖은 댄서들의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을 텐데요.

내가 몽마르뜨르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Utrillo의 풍경화에 나오는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Utrillo의 풍경화를 보면 흰색과 연한 노란 색의 집들이 나란히 서 있는 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 그림들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몽마르뜨르 언덕을 오르다 보면 그 풍경화의 모습과 닮은 거리가 많이 눈에 띄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풍경 말입니다.

몽마르뜨르 언덕에는 수많은 무명 화가들이 이발소 그림을 걸어 놓고 손님을 끌고 있습

니다. 그림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유치찬란한 그림들만 걸어놓고 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잘 사가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초상화 그려 준다고 달라 붙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그게 몽마르뜨르의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몽마르뜨르 언덕 곳곳에서 맨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작은 공연들이 열립니다. 그런 것들 보노라면 한 나절이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aris 통신 -17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 통신의 굴욕.

어제 올린 제 16신의 조회 수는 야구 사진 얻으려 한다는 광고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역시 장기 연재에 따른 독자들의 피로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20회의 연재를 다 채우려 합니다.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이 여론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행 갔을 때 제일 반가운 일 중 하나가 우연히 먹자골목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가이드 북에서 읽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노트르담 성당 바로 맞은 편에 있는 St. Michel 광장 부근의 먹자골목도 그런 행운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이미 그곳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골목마다 사람들이 득실했습니다. 다들 메뉴를 들여다 보면서 뭘 먹을까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즐거운 고민’ 이라고 부르지요. 메뉴를 보면서 음식을 상상하고, 그것을 먹을 때의 즐거움을 머리에 떠올릴 때의 즐거움을 아시겠지요?

거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아 부담 없이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다양한 ethnic food 음식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가면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정석일지 몰라도, 나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특히 즐겨합니다. 지난 번 말한 돼지코 요리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요.

첫 번째 거길 찾았을 때 나는 그리스식 꼬치구이로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제법 푸짐한 꼬치구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레스토랑인데 왼쪽에 보면 꼬치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 해물꼬치를 골라 먹었지요.

그런데 이 골목에 있는 음식점들은 모두 ‘빼끼’ 한 명씩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호객 행위의 수준이 우리나라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나도 이 사진에서 보는 사람이 강권하는 바람에 그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료로 드링크도 한 잔 준다고 꼬이더군요. 일반적으로

빼끼가 이끄는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거기서 모두가 빼끼를 고용하고 있어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후회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프랑스에도 2차노동시장이 꽤 발달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나오는 2차노동시장 말입니다. 전문직 위주의 1차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꿈도 꾸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의 노동시장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런 빼끼, 화장실에서 돈 받고 있는 아줌마 등등이 2차노동시장의 구성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 디저트가 빠지면 좀 섭섭하지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디저트 혹은 간식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크레프’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구요.) 맨 아래 사진을 보고 어떤 크레프를 먹을지 골라 보세요. 나 같은 프랑스어맹은 아무 거나 찍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Paris 통신 - 18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도시를 평가할 때 공원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명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멋진 공원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맨하탄의 Central Park에 가보면 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넓은 금싸라기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해 준 혜안이 부러운 거지요.

Paris도 세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공원이 좋습니다. 맨 위의 Luxembourg 공원은 내가 Paris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나무와 꽃을 심어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Paris 사람 보면 정말로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광객들이 그 공원을 점령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 사진은 Monceau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지하철 역에서 내리면 바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주택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손자, 손녀 데리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 많더군요.

이 사진에서 보듯 넓다란 잔디밭에서 선텐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각상 아래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아주 한가로워 보이지요? 나도 거기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정말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날은 시원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와 더욱 좋았습니다. 그 공원을 떠날 때는 섭섭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맨 아래 사진은 Marais 지구 중심부에 있는 Vosges 공원입니다. (내일 Marais라는 곳에 대해 자세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Paris 한 가운데 위치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변의 건물들은 예전에 높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공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잔디밭에 별령 누워 선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거길 찾지 않았지만, 지하철 1호선의 양쪽 끝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Vincennes 숲과 Boulogne 숲이 그곳인데, 거기다 도심의 일부인데도 엄청나게 넓

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호수에서 보트 타는 사람 등 모두가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드넓고 아름다운 숲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신기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돛자리 깔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비좁고 다니기도 힘들 텐데요.

Paris의 공원들을 보면서 다시 서울 강남 지역을 설계한 사람들의 천박한 센스에 대한 분노가 치밀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남은 허허벌판에 새로 세운 도시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계획이 세워졌지요.) 그렇다면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취해 정말로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살벌한 콘크리트 숲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녹지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 혹은 강남이 세계 유수의 도시에 못지 않게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동네 뒷산을 모두 녹지로 카운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을 할 때도 녹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선전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은 관광객이 테헤란로를 걸으면서 어디서 다리를 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심 가운데의 휴식 공간이 아납니까? 그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 너무 아쉽네요. 강남 설계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세계 유람 시키면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요.

Paris 통신 - 19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뜻밖으로 좋은 곳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 북이 명소 위주로 설명되어 있어 그 부근만 왔다갔다 하다가 떠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명소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Paris에서 이번에 발견한 바로 그런 곳이 Marais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도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stille 광장과 풍피두 센터 사이에 있는 지역이니깐요. 그런데도 예전에 Paris를 찾았을 때는 한 번 지나치지도 않았습다. 노트르담이나 몽마르뜨처럼 유명한 곳은 아니니깐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길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이드 북은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Bastille광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처 없이 찾아 다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운 좋게 Marais 지역의 중심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맨 위의 사진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 작은 광장의 명물은 사진에서 보는 팔라펠(falafel) 집입니다. 간판에는 L자가 두 개 있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두 개인지 모르지요. 흥미로운 점은 그 부근에 팔라펠 파는 집이 여럿인데 유독 이 집만 붐빈다는 사실입니다. 맛을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대충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러 집이 경쟁하다 보면 자연히 품질의 convergence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니깐요.

아마 이 가게가 운 좋게 언론을 타서 그런지 모릅니다. 사진에서 까만 티셔츠를 입은 사내가 어떤 여성 붙들고 얘기하는 장면이 보이지요? 그 친구는 이 가게의 빠기인데 뉴욕타임즈 기사 오린 것 손에 들고 호객행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 집은 뉴욕타임즈에 난 집이라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왼쪽으로 팔라펠을 기다리는 긴 줄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줄은 사진에서 보는 것의 네댓 배 정도는 더 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팔라펠을 take-out해서 먹는 광경입니다. 다리만 안 아프면 이렇게 먹어야 제 맛이지요. 그러나 연일 강행군으로 다리가 피곤한 나는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뭐 시원하고 나름 좋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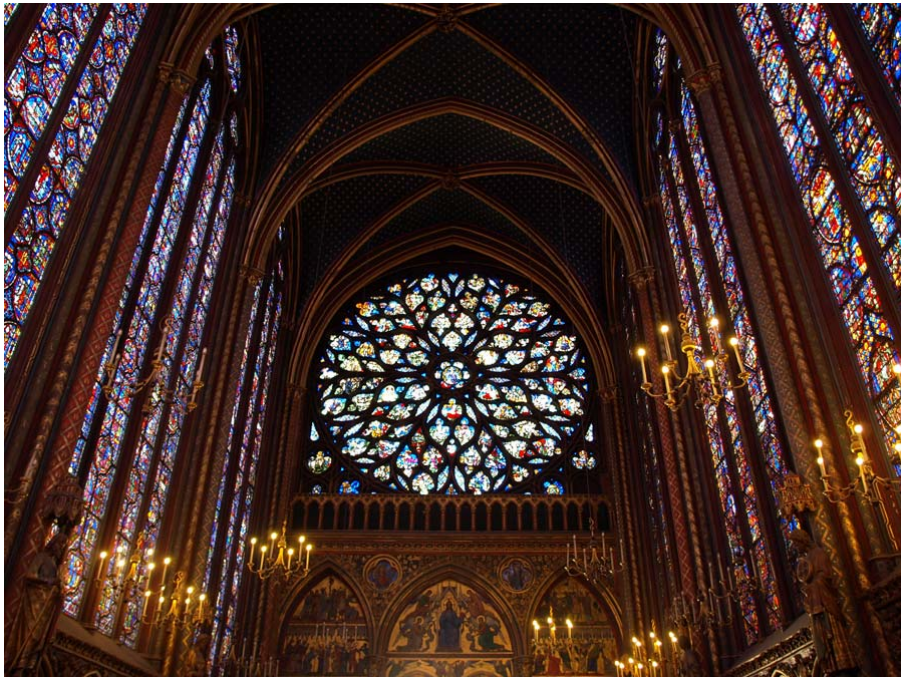
난 팔라펠이라는 것을 처음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 맛은 별로였어요. 콩을 갈아 완자처럼 만든 것을 튀긴 것이 팔라펠인데, 우리가 흔히 먹은 군만두보다 못하네요. 함께 먹는 피타 브레드나 샐러드가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팔라펠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이 원래 이집트에서 출발한 대표적 아랍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 가게가 그걸로 히트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로지에 거리는 대표적인 유대인 거리거든요. 문화 융합으로 인해 유대인들도 팔라펠을 많이 먹게 되었는지 모르지요.

유대인이 모여 사는 지역을 ghetto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Paris의 ghetto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화려할 수는 없는 지역이구요. 하지만 세 번째 사진에서 보는 작은 골목들이 무척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 가게들 들여다 보는 재미도 쏠쏠하구요. 나야 유대인 음식이라고는 베이글밖에 모르니까 신기하게 보이는 게 많지요.

Marais 지역에는 예쁜 옷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출몰하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길에서 동성연애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Paris 갈 때 Marais를 놓치지 마세요.

Paris 통신 - 20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는 ‘교회의 도시’라고 할 만큼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London에는 Westminster나 St. Paul 정도가 고작이고, Rome에는 Vatican 빼놓고는 유서 깊은 교회를 보기가 더욱 힘듭니다. 이에 비해 Paris에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웅장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Paris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Notre Dame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맞은 편에 있는 생샤펠(St. Chapelle) 교회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위 사진에서 보듯 겉모양만 보면 그리 특출난 점이 없습니다. (오른쪽 건물은 최고재판소입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의 벽이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차례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각 그림을 읽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라고 하네요.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하면 Notre Dame의 것은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248년에 지은 교회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때 만든 것이 대부분 남아 있다고 합니다. (1248년이면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교회는 생제르맹데프레(St. Germain Des Prés)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진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라네요. 우리의 삼국시대인 542년에 세운 교회라니까요. 노르만의 침입 때 일부 파괴되었지만 11세기에 다시 보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역사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은, 그 교회 옆 벽에 작은 아파트가 붙여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어찌 그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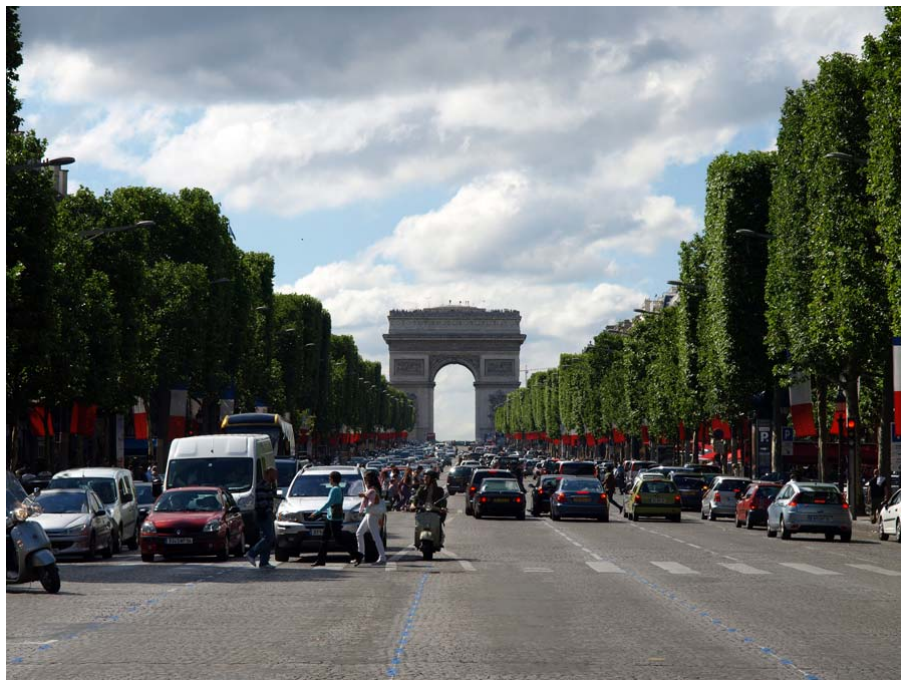
네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은 생제르맹록세루아(St. Germain l'Auxerrois) 교회인데, 사실 그리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아다닌 이유는 1572년에

일어난 ‘성바톨로뮤 축일의 대학살’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종이 울리는 것은 신호로 신교도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을 찾았을 때 마침 종이 울리고 있었는데, 대학살의 과거를 잊은 듯 평화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7세기에 건축되었다니 꽤 긴 역사를 가진 셈입니다.

맨 아래 사진에서 보는 생퇴스타슈(St. Eustache) 교회는 앞에서 소개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때 지어진 건물이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16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리슐루 추기경 등 많은 유명인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네요. 역사는 짧지만 외양은 아주 웅장합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이번의 Paris 여행에서 특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내가 그 돼지 주변부 요리를 먹은 레스토랑이 바로 이 교회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느라고 두 번이나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생퇴스타슈라는 이름이 왜 그리 기억하기 힘들던지요. 그 부근을 뱅뱅 돌다가 거의 포기할 뻔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Paris에서 길 잃으면 정말로 속수무책이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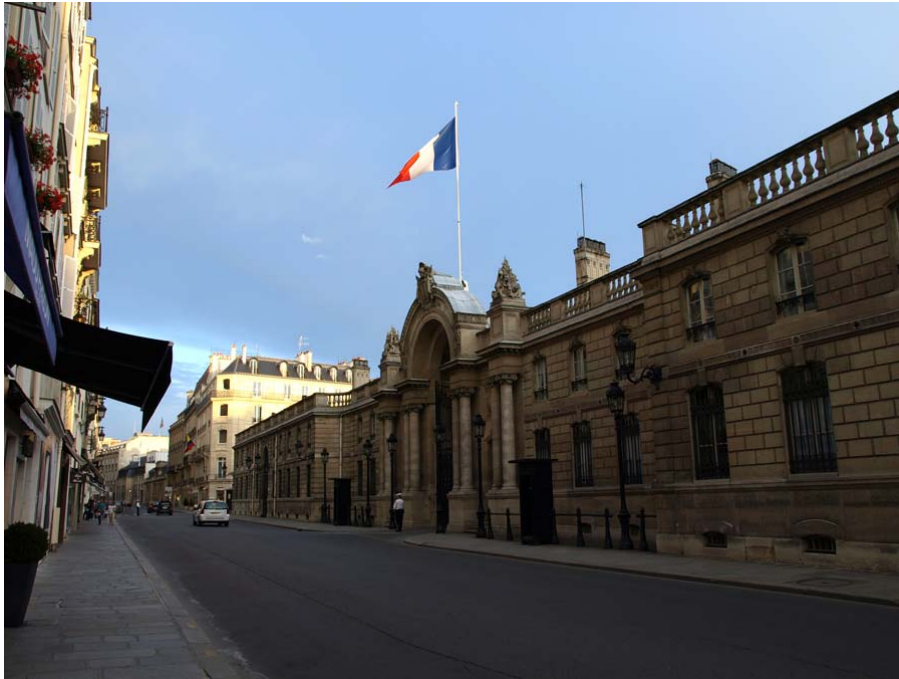
Paris 통신 - finale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회에 걸쳐 연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부득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한 번 더 통신을 올리겠습니다.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 Paris 여행도 샹젤리제에서 시작해 샹젤리제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묵은 호텔은 개선문에서 La Défense 쪽으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지도를 공부했던 터라 짐을 풀자마자 개선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날은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러나 DSLR로 Paris를 이 잡듯 뒤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땀별 속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먼 발치에 개선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이 쿵당쿵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승전 기념탑을 보고 왜 내 가슴이 뛰지?”

아닙니다. 이제 Paris의 심장부로 뛰어 든다는 흥분에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샹젤리제 거리는 이 개선문에서 시작해 콩코드 광장에서 끝납니다. 지하철 다섯 정거장쯤 되니까, 한 2, 3킬로미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마지막 날에 찍은 것입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한 건널목을 네댓 번 왔다갔다 한 끝에 이 두 장의 사진을 얻었습니다. (콩코드 광장 쪽으로 찍은 사진 끝머리에 아스라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벨리스크라는 이집트 탑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찍어서 이 두 사진을 얻은 것입니다. 이 두 장을 마음 속에서 합치면 샹젤리제의 길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Paris에 가자마자 샹젤리제로 뛰어가는 놈은 ‘촌놈’이 분명합니다. 좀더 세련된 여행객이라면 좀 더 고상한 곳으로부터 여행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좋으니 난 샹젤리제로 뛰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넘치는 곳이니까요.

샹젤리제의 매력은 나 같은 촌놈들로 넘쳐나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종의 전시장 같습니다. 온갖 피부 색깔, 온갖 패션이 모두 등장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쓰리꾼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샹젤리제의 매력이지요.

길 옆의 수많은 노천카페는 샹젤리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걷다가 슬쩍 쳐다보면 갖가지 음료, 갖가지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나도 함께 즐거워지지요. 잠시 삶의 시름을 잊고 마음껏 즐거움을 느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샹젤리제 바로 뒤 작은 길에는 맨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르슈 사르코지가 거기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 관저 치고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경비병력도 거의 보이지 않구요. G7의 주요 멤버인 프랑스의 대통령 관저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된다고 허풍을 떨던 우리의 대통령 관저는 온갖 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느슨한 분위기 덕분에 관저 앞 경비를 서던 경찰에게 지하철 역이 어디냐고 물을 수 있었지요. 영어로 말을 거니까 움찔하다가 ‘metro’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신 있게 역쪽으로 손가락질 해주더군요. Paris에서는 ‘metro’ 만 외치면 다 알다들습니다. ‘메트 호’ 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처럼 당당하게 ‘메트로’ 라고 외쳐도 무방합니다. 꼬부라지지 않는 혀를 일부러 꼬부릴 필요가 있나요?

거기 도착한 날 호텔에서 출발해 샹젤리제를 모두 섭렵한 다음, 뒤쪽 길로 빠져 눈이 부신 명품가를 지나 Opera Garnier까지 진출했습니다. 족히 10킬로미터 정도는 걸은 것 같습니다. 거길 떠나는 날은 그것과 역의 방향으로 걸었는데, 그 길이는 대충 같았습니다.

이렇게 강행군을 한 바람에 발바닥이 아프기는 했으나 체중 조절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내내 기름진 소스와 디저트에 탐닉했지만 체중은 1킬로 빠졌습니다. 다리 운동을 많이 한 덕분에 귀국한 다음 날 테니스 시합에서 뽕뽕 날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날더러 프랑스에 전지훈련 갔다 왔냐고 묻더군요.

오늘이 귀국한 지 꼭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집을 떠나 학교에 오고, 6시 30분에 집을 싸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화, 목에 테니스 치는 스케줄도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슈퍼에서 쇼핑 카트 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단순한 일상이 너무 좋습니다. 가끔 Paris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 재미없는 Paris 통신을 읽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